

독무대

1회 : 4/21 (Sat) 6PM

2회 : 4/28 (Sat) 6PM

〈독무대〉는 드로잉의 개념적 특성을 타 장르와 매개하여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탈영역 우정국에서의 이번 협업 공연에서는 더블베이스가 드로잉의 요소들을 연주한다. 성열원 더블베이스 연주자는 드로잉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에서부터 유연한 변주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적 요소와 즉흥성, 동시에 고유의 독립성을 잃지 않는 드로잉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 더블베이스를 독주한다. 이번 〈독무대〉는 합주의 영역에서 벗어나 드로잉적 감각으로 그려나가는 더블베이스 선율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현수

곡을 연주한다기보다 소리로서 들려주는 파트. 선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드로잉으로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듯 한 악기가 내는 기초적 선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작. 한 악기가 가진 고유의 소리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도입부.

합주 시 일반 합주곡에서 더블베이스가 맡은 부분만 연주되는 파트. 부분이지만 독립적인 드로잉처럼 부분연주가 새로운 곡의 형태로 들리는 순간. 다른 파트가 연주되는 심표의 구간조차 드로잉의 여백처럼 느끼게 된다.

드로잉이 고유의 독립성을 잃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온전한 작품으로 인식되듯 합주의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더블베이스가 멜로디파트와 베이스파트를 동시에 연주하며 완전한 음악을 들려주는 순간. 성열원이 더블베이스를 위해 만든 자작곡.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드로잉의 순간처럼 즉흥연주가 시작. 악보에 드로잉처럼 스케치가 되어있지만, 연주가 시작되는 그 날, 그 순간에 따라 변화되는 연주. 1, 2회 공연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같지 않음. 마치 드로잉의 가능성이 다르게 귀결되듯.

성열원

1

손-pizz-으로 커지는 더블 베이스의 사운드에 집중된 연주. 현을 울리게 하는 오른손 그리고 현을 누르는 왼손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소리의 뉘앙스 “블루스, 불리지한”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한 (간결한) 선율, 그 선율에 제한하여, 음악학적 요소가 아닌 무한한 뉘앙스로 정의되는 “블루스, 불리지한”에 기반을 두어 연주한다.

2

소위 “재즈 스탠다드” 곡을, 전형적인 “재즈 스탠다드 연주 구조”에서 더블 베이스의 역할만을 표현하여 그 곡을 노래한다. 한 부분만을 연주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온전한) 한 곡으로의 가능성을 찾는 여행이다.

3

전형적인 재즈 연주에서 곡은 음악의 일부 혹은 바탕으로 여겨지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음악이기도 하다. 보통의 연주에서처럼 곡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그 곡만을 표현하여 완전한 음악을 만든다.

4

드로잉과 독무대에 영감 받은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에 기반을 두어 -혹은 전혀 상관없이- 무대에서 그 순간에 집중하여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음악을 만든다. 1, 2회 공연 모두 같은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출발하지만, 표현하려는 것은 그 아이디어가 아닌 “그 순간” 이므로 같은 곡일 수 없다.